

숏폼드라마, 이제는 고품질로 승부한다

시청자 규모 6억 6,200만명, 1인당 하루 사용 시간 101분

최근 우리 나라의 숏폼드라마 《가 내외(家里家外)》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3일 만에 조회수 10억 회를 돌파했다. 촬영 기간이 고작 17일 밖에 걸리지 않은 이 숏폼드라마는 1990년대의 사천과 중경 지역을 배경으로 서민들의 일상을 재치 있고 따뜻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중국 인터넷 오디오 비디오 발전 연구 보고서(2025)〉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 나라 숏폼드라마 시청자 규모가 6억 6,200만명, 사용률은 59.7%였다. 1인당 하루 사용 시간도 101분에 달한다.

최근 숏폼드라마는 기존의 영화, 드라마에서 자주 다루던 무협, 수사, 첩보전 등의 소재를 사용해 서사 구조를 재구성하고 예술성과 사상성을 겸비한 정제 작품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홍과(红果) 숏폼 총편집력은 현재 숏폼드라마 시청자들이 저예산 ‘시간 보내기 드라마’에 점차 로를 느끼고 있어 업계는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경사범대학 예술전매(传媒)학원 부원장 양승호는 숏폼드라마와 일반 드라마 시청자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숏폼드라마는 일상의 삶을 기반으로 섬세한 감정 표현과 사회 통찰을 통해 시대적 문제를 다루는 한편 인기와 가치를 함께



▲ 숏폼 웹드라마 촬영이 한창인 상해국제숏폼센터

를 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콘텐츠의 혁신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들 역시 숏폼드라마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다. 국가인터넷시청자협회에서 발표한 〈2024 숏폼드라마산업 생태 통찰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숏폼드라마산업은 64만 7,000개의 직간접적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올해는 시장 규모에 따라 고용인원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숏폼드라마는 단순한 오락적인 기능을 넘어 ‘숏폼드라마+’ 모델을 통해 문화관광과 융합되거나 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사전성 사용자

정보파손을 레로 들면 ‘농번기 경작, 농한기 연기 활동’은 이미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6월 이후 롱보파손은 80여개의 촬영팀을 유지해 1,6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상+관광’ 산업사슬의 협력 발전을 이끌고 있다.

/ 신화넷

우리 나라 디지털 콘텐츠, 글로벌 시장서 립지 넓혀가

마이크로 드라마, 게임, 인터넷 문학 등 우리 나라의 디지털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립지를 넓혀가고 있다. 국가라지호텔레비존방송총국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마이크로 드라마(微型电视剧)가 전세계 200여개 국가와 지역에 제공되고 있다. 관련 해외 앱은 300개 이상, 글로벌 루직 다운로드 건수는 4억 7,000만회를 넘어섰다.

대표적인 중국 숏폼 웹드라마 앱으로는 풍엽호동(枫叶互动)의 ‘릴샷’이 있다. 해당 앱은 강력한 반전과 빠

른 스토리 전개가 특징인 1분 길이의 에피소드로 짧은 시간에 많은 팔로어를 확보했다. 풍엽호동 부총재 남아봉은 “지난해 글로벌 류통을 위해 중국 숏폼 웹드라마를 현지화하고 할리우드 제작진과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는 등 새로운 형식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게임 분야에서는 최첨단 그래픽의 중국 3A 게임 〈흑신화: 오공〉이 전세계 게이머들을 사로잡았다. 〈원신(原神)〉, 〈붕괴: 스타레일〉 등 기존의 인기 게임도 100개 이상

국가(지역)에서 다운로드 상위권에 랭크되어있다. 지난해 국내 게임 업계의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13.39% 증가한 185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 나라의 인터넷 문학도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궈비지주(诡秘之主)〉, 〈투라대륙(斗罗大陆)〉, 〈경여년(庆余年)〉 등 우리 나라 웹소설 10편이 영국 런던 대영도서관의 소장 목록에 포함되었다. 2023년 우리 나라 인터넷 문학 업계의 해외시장 매출 규모는 43

억 5,000만 달러에 달했다. 전년보다 7.06% 증가한 수준이다.

한편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 나라 디지털 콘텐츠의 글로벌 확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독서 플랫폼 웹노블에는 지난해에만 2,000편 이상의 AI 번역 작품이 추가되었다. 게임업체 미하유(米哈游)는 AI, 클라우드 게임 등 기술 분야에서 수백개의 특허를 출원하고 3D 렌더링 엔진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프로그램화했다.

/ 신화넷

전통음악, 문화전승과 혁신표현으로 영화에 조력

을 음력설의 개봉작들인 《나타 2》, 《봉신 제 2부》 등 국산 영화들이 전통음악 요소를 창의적으로 활용, 관객들에게 시각과 문화적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거문고, 새납, 전통회곡 등 민족예술을 현대 영화 언어와 융합함으로써 문화적 유전자를 활성화하고 서사의 차원을 확장한 것이다.

서사적 측면에서 전통음악은 줄거리를 이끄는 핵심적 코드 역할을 한다. 《나타 2》에서는 8개의 새납을 동시에 연주하는 장면으로 운병에 대한

주인공의 저항을 강조하고 동족의 다성부 합창으로 주인공의 재탄생을 은유했다. 《봉신 제 2부》에서는 민요 〈녀회(女怀)〉를 통해 서기(西域)의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고 〈사조영웅전: 협객의 대자〉는 몽골어 노래 〈모래선풍(旋风沙)〉으로 초원의 호매로운 기상을 형상화했다. 영화음악은 이제 단순한 배경음악의 범주에서 벗어나 시공간의 구축과 캐릭터 구성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적 혁신 측면에서 영화들은 기술적 수단을 통해 전통음악을 현대

적으로 풀이했다. 《봉신》은 상나라와 주나라 시대의 생황(笙) 음악과 고쟁(古筝)의 ‘축(筑)’ 음색을 복원하고 현대 음향 기술을 가미해 서사적 감동을 재현했다. 《나타 2》는 후마이(呼麦) 기법과 전자음향을 융합해 신비감과 압박감을 동시에 주는 산업급 음향 효과를 창출했다. 이러한 ‘고전의 맛을 담은 새로운 소리’는 전통 예술에 현대적 생명력을 부여했다.

국제 전파 과정에서 전통음악은 문화적 장벽을 넘는 가교 역할을 한다. 《나타 2》의 캐릭터 곡 〈바로 나타야〉

는 ‘자유를 향한 용기’라는 보편적 가치로 전세계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백사전·정(白蛇传·情)》은 4K 풀사운드 기술을 통해 전통회곡의 창(唱)을 ‘들리는 중국 미학’으로 승화시켜 국제 영화제에 성공적으로 상륙했다.

영화음악은 문화적 독창성과 미적 개방성으로 중국 이야기가 세계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태고 있으며 전통음악의 창조적 변용은 문화적 자신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국산 영화에 새로운 예술적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 국제온라인



2025년 ‘진선 장춘’ 종로민족 교향음악회가 4월 3일 장춘영화제작소 음악청에서 거행되었다. 전반 공연은 명쾌한 리듬과 진작된 분위기로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음악의 향연을 선물했다.

장춘영화제작소 음악청에서는 4월달에만도 계속해 11일, 18일, 25일 3차의 교향음악회를 펼치게 된다.

/ 김일보

세계 최대 규모 언어자원 데이터베이스 중국에

교육부 뉴스발표회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언어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아래에 그 요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언어의 과학적 보호에 새로운 방법 생겨

우리 나라 언어자원 데이터베이스는 120여개 언어와 방언 자원을 다중모드로 통합했다. 국가통용언어, 소수민족언어, 다양한 방언을 연구하고 싶다면 세계 최대 규모의 언어 자원 데이터베이스가 도움을 줄 수 있다. 더욱 대단한 것은 우리 나라는 ‘갑골문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휴대폰으로 3천년전 거북이 갑각에 새겨진 문자를 검색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중화사상문화술어 데이터베이스, 세계가 중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고서에 기록된 문자를 활성화하고 중화사상문화술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중화사상문화술어 전파를 심층적으로 추진한다. ‘천인합일’과 ‘화이부동’ 등 1,200여개의 중화민족화어체계 속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사상 문화 키워드를 국제적으로 전파하고 40여개 국가 및 지역과 다국어 디지털 저작권 협력을 통해 세계가 중국을 더 잘 료해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어 공부에 스마트 도구 미 생겨

전세계 192개 나라의 1,600만 사용자가 ‘글로벌 중국어 공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중문론펜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은 3만개의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며 중외 1,600여개 기구와 협력하여 중국어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표준어시험 방식의 스마트화 전면 추진

발표회에서서는 표준어시험 방식이 ‘인공’으로부터 ‘스마트’로 완전히 전환되었다고 밝혔다. 광둥에는 이미 전국 최초의 ‘스마트시험장’이 건설되어 수험생들이 컴퓨터로 테스트를 완료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9,000만장 이상의 전자증명서가 발급되었다.

/ 인민넷 - 조문판

문화유신

중국의 명산—려산



▲ 백록동서원(白鹿洞书院)

려산(庐山)은 강서성 구강(九江)시 려산시 경내에 위치해있는데 웅장함, 기이함, 협준함, 수려함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려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려산의 주봉은 한양(汉阳) 봉으로 해발이 1,474미터에 이른다. 산체는 타원형으로 전형적인 지루(地垒)식 단층산맥의 특징을 갖는다.

려산은 자연경관이 무척 아름다운 바 산봉우리 사이에 다양한 언덕, 계곡, 동굴, 괴석이 분포되어있다. 물은 골짜기에서 갈라져 흐르며 많은 급류와 폭포를 형성하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오로(五老)봉 아래 위치한 삼첩천(三叠泉) 폭포이다. 삼첩천 폭포는 ‘려산 제1경관’으로 알려져있으며 총차차 155미터로 달리는 말과 같은 기세로 소리가 크고 웅장하다. 옛말에 “삼첩천에 가보지 않으면 려산의 관광객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관폭정(观瀑亭)’에서 내려다보면 폭포가 3겹으로 나뉘어 쏟아지는 기이한 경관을 볼 수 있다. 또 아래 반석에서 올라다보면 물방울이 튀어오르며 마치 은하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한 장관을 연출한다.

려산에는 명승고적이 많은데 수백수천년 동안 수많은 문인 묵객, 명인 지사들이 이곳에 작품을 남겼다. 동진의 시인 도연명은 평생 려산을 배경으로 창작을 많이 했다. 그가 창시한 전원시풍은 우리 나라 시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대의 시인 리백은 려산을 다섯번 유람하고 14편의 시를 남겼는데 그중 〈려산 폭포를 바라보며(望庐山瀑布)〉가 널리 알려져있다. 송대의 시인 소식의 작품 〈제서림벽(题西林壁)〉중의 “려산의 진모습을 알지 못하는 바로 몸이 그 산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구절은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려산은 문화적 의미가 깊은바 문화명산, 교육명산, 종교명산 등 여러 가지 명성을 지니고 있다. 송대의 철학자 주희(朱熹)는 이곳에 백록동서원(白鹿洞书院)을 세우고 부흥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강학식 교육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방대한 ‘리학(理学)’ 체계를 세웠다. 근대에는 지질학자 리사광이 제 4기 동안 려산에서 빙하가 발달했음을 주장하며 국제학술계의 주목을 받았고 그로 인해 려산은 자연과학연구의 중요한 장소로 자리잡았다.

려산은 종교문화가 독특한데 “한산에 여섯 종교가 있는바 이는 천하를 돌아다녀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4세기부터 13세기까지 려산은 종교가 번성했으며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동방정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들이 조화롭게 공존했다. 이 시기에 사원과 도관은 500여개에 달했다. 현재도 려산에는 동림사(东林寺), 서림사(西林寺), 황룡사(黄龙寺), 낙나탑(诺娜塔) 사원, 선인동(仙人洞) 도관, 기독교 성당, 문수(文殊)탑 등 높은 문화재 가치와 관광 가치를 지닌 종교 건축물들이 남아있다.

려산의 최적 관광 시기는 여름으로 우리 나라 4대 피서지의 하나로 꼽힌다. 2023년 9월 1일부터 려산관광구는 ‘1회 티켓으로 여러번, 여러날 사용 가능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티켓 1장으로 주변 10대 명소를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다. 관광권을 려산핵심관광구(5A 관광구) 티켓(160원)을 구입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려산핵심관광구(5A 관광구) 및 기타 10대 명소를 관광할 수 있다. 또한 매년 3월을 려산관광구 ‘무료 개방의 달’로 지정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 인민넷